

잿더미로 변한 송정5일시장...상인들 “어떻게 살라고”

14일 새벽 1시께 발생한 불로 점포 204칸 중 38칸 전소돼 샌드위치 패널 지붕 피해 키워 대부분 영세상인들 '앞길 막막' 화재 취약 전통시장 대책 시급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5일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불에 탄 상점들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송정5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중이다. <광주광산소방 제공>

“아이고 다 타버렸어 어떡하냐...”

1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시 광산구 송정5일시장 상인들은 잿더미로 변한 점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틀 전인 14일 새벽 화재(火魔)가 덮친 점포를 정리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장날(18일)을 이틀 앞둔 시장에는 무거운 적막이 흘렀다.

광주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에서 지난 14일 새벽 1시께 난 불은 상점 204칸 중 38칸(상점 12곳)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시장 안쪽으로는 매캐한 연기와 까맣게 탄 재로 가득했다. 가게 셔터는 찢긴 채 불에 그을렸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지지대와 들보는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불이 난 옷 가게에는 형태를 알 수 없게 타버린 옷들이 널려있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은 플라스틱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했다.

“하나라도 살려보려는” 가게주인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셔츠 등을 서둘러 밖으로 끄집어냈다. 불에 탄 철물점에서 판매하던 도끼와 낫 등은 열기에

휘어진 상자 속에 담겨있었다.

화재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증명하듯 크고 작은 소화기가 현장 곳곳에 굴러다녔고 일부 화마에 휩쓸리지 않은 상점들도 그을린 채 현수막 등이 찢겨져 있었다. 불이났다는 소식이 현장에 나와 본 상인들은 “아이고 다 타버렸네 어떡하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영자(여·66)씨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던 중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처음 불이난 걸 알았다”고 화재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머지않아 ‘평평’ 소리가 나고 탄 내가 나서 큰 불

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고령의 상인들 생각이 먼저 났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 35년간 장사해온 송정국밥 사장 배병석(70)씨는 오랜세월을 함께했던 만류 불이 난 상점 상인들을 잘 알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배씨는 “(피해 상점 상인들은)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영세한 사람들이었다. 정부, 구청 어디에서 피해 지원을 해줄 지 모르겠지만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소원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김모(여·68)씨는 “아무래도 (상점이) 다닥

다닥 붙어있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순식간에 불이 붙은 것 같다”며 “요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돈없는 상인들이 얼마나 화재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싶다”고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이곳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신연자(여·74)씨도 “이렇게 큰 불이 난 건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스프링클러도 없고 한번 불이 나면 크게 번진다는 점에서 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화재가 빠르게 주변으로 번진 까닭으로는 가연성 물질인 ‘샌드위치 패널’이 시장 내 상점의 지붕을 덮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샌드위치 패널이 지붕을 덮고 있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었던 비아5일시장도 샌드위치 패널로 피해가 더욱 컸다.

한편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4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지자체와 협력해 상점과 공용 구간 시설을 복구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공제보상금 지급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약속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북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첫 추진

6월 동림동 불공고개 등 3곳에 추모비...7월 합동 위령제도

광주시 북구가 한국전쟁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진행한다.

위령사업은 추모비 설치와 위령제 봉행으로 구성됐다.

먼저 6월 중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이 발생한 장소인 동림동 불공고개, 양산동 장고봉고개, 문흥동 도동고개 등 3곳에 추모비를 설치한다.

7월에는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위령제도 진행한다.

광주지역 타 자치구도 광주내 민간인 집단 희생자 4곳에 대한 위령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사결과 북구지역에서 한국전쟁 시기 광주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2300여명의 재소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즉결 처분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교육청, 학교급식 질 높인다

예산 79억 늘어난 1593억 책정...평균 지원 단가 4303원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학교급식 예산을 지난해보다 79억원 늘어난 159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식품비를 전년보다 10.4% 인상해 초·중·고교 평균 지원 단가를 4303원(초 3760원·중 4490원·고 4660원)으로 확정했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급식운영비는 올해 최초로 공립병설유치원 일부 학교로 확대해 총 33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40개교에 소속된 병설유치원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급식운영비 지원 대상을 광주 지역 모든 공립유치원으로 확대해 학교급식 운영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학교급식 글로벌 DAY’는 올해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어가 세계 각국 대표 음식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한다.

안전한 급식 공급을 위해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건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전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모든 학교(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영양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전남 다시 강추위 기승...아침 영하권

오늘 5~10도 '뚝'...강풍 동반

봄바람이 불고 새싹이 난다는 절기인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광주·전남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 이번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부터 광주·전남이 다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날 보다 기온이 5~10도 가장 급격히 떨어져 출겠다”고 16일 예보했다.

주말 동안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가 이동성고기압을 타고 남하한 찬공기로 인해 평년(최저 영하4~1도·최고 5~10도)보다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4~0도·낮 최고기온 4~6

도에 분포하겠고, 18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6~영하 2도·낮 최고기온 2~5도를 보이겠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전남 해안에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출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